



‘퇴출 0순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 ① 노골적인 5·18 홀대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국민 우롱
- ②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배척, 제창 거부 앞장
- ③ 국회 세차례 해임 촉구 결의안 통과에도 버티기
- ④ 6·25 기념식에 ‘5·18 학살’ 11공수 광주시내 행진 추진

‘5·18 모독’ 박승춘 체제로 또 ‘반쪽 기념식’ 치를건가?

오월 3단체, 기념식 행사 확정하는 4월 이전 사퇴 총력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체제로는 제 37주년 5·18기념식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부 극우세력을 등에 업은 박 처장이 5·18민주화쟁을 홀대하고 5·18피해자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수년째 이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5·18단체는 박 처장의 뒤를 보냈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보훈처가 매년 4월부터 5·18 정부기념식의 틀을 짠다는 점 등을 감안, 새 대통령 취임(5월9일) 전 박 처장의 사퇴를 이끌어내 5·18 홀대, 반쪽짜리 5·18기념식'을 끝내겠다는 각오다.

1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등 5·18 3단체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가 있던 지난 10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정기 간담회에서 “박승춘 보훈처장 체제로 5·18기념식을 치를 순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보훈처가 매년 4월께 5·18기념식의 방향을 잡는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안에 박 처장이 사퇴해야한다”는 지역민 여론을 확고한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에 전달해야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다만 보훈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황 대행이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박 처장처럼 ‘우 편향’인사를 또 다시 후임으로 앉힐 수 있다는 점이 5·18 단체의 고민거리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황 대행이 ‘대통령 퇴임 후 박 처장 해임에 관해’ 지역민 여론을 전달받지도 못했다는 노골적으로 5·18을 홀대, 모독해 지탄 받아왔다. 박 처장은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는데도 5년째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5·18기념식

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샀고, 광주지방보훈처장이 하던 5·18기념식의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기념일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지난해 6월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11공수여단을 6·25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었다.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박승춘 스트레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경건하게 치러져야 할 5·18기념식은 ‘정부 따로, 시민 따로’의 반쪽짜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런 탓에 국회는 수차례 박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5·18단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국론 통합과 5·18피해자의 명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막가파식 행보를 보여온 박 처장도 조속히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지는 서명 운동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발포명령자를 찾아라”

국민의당 특별법 추진 ... 수사권·조사권 가진 진상규명위 구성

국민의당이 정부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국민의당 5·18 헬기 사격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5·18 단체, 광주시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진 정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5월 단체는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활동이 발포 명령자 규명 등 전반적인 5·18 진실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제주 4·3 사건처럼 정부가 5·18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5월 단체는 옛 전남도청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보

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5월 단체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5·18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당은 국회 교문위의 송기석 의원을 중심으로 문화전당과 5·18이 결합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립교원 교육청 위탁해야 채용 ▶7면
新 湖南誌- 화순 약초시장 ▶18면



이정미 ‘아름다운 퇴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퇴임식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건물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권한대행, 차기 권한대행인 김우식 재판관. ▶관련기사 3면 / 연합뉴스

박삼구 “컨소시엄 불허 땀 인수 포기”

금호타이어 인수 채권단과 충돌

“외부자금 인정해달라” 배수진

금호타이어를 인수해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 회장이 측이 채권단에 외부자금을 인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배수진’을 쳤으나 채권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아시아그룹은 13일 서울 종로구 그룹 본사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어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철 금호아시아그룹 재무담당 상무는 “현 경제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FIT)로만 100% 인수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 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는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FIT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에 나서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윤 상무는 “컨소시엄 구성만 해결되면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다수의 SI와 함께 무리 없이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업체를 포함한 여러 군데와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그룹은 컨소시엄이 허용되지 않으면 매각 약정과 관련한 법적 소송도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 금액은 9550억원이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42%의 지분 비율로 금호타이어의 최대 주주가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대통령선거 5월 9일 잠정 확정

정부, 이번주 공고 예정

정부는 ‘5월 장미대선’을 5월9일 치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일 공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이미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실무 차원에서 5월9일을 대선일로 잡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종래한 사안인 만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

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29일부터 5월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5월9일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부가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연합뉴스

당신께 힘이 되는 아파트!

용봉 신안 고운하이플러스

3월 17일 OPEN

광주 최초!

하우스리페어 서비스실시!

하우스리페어 (House Repair)란?
용봉 신안 고운하이플러스에서 입주기간 동안 수리비 절감 및 최상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생활비용의 교체 및 보수를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무료로 보수 설치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오픈기념 경품대잔치

이벤트1 오픈기념 경품추첨이벤트
▶추첨일시 : 3월 19일 오후 4시 (※현장참석자에 한함)

이벤트2 모델하우스 방문객 사은품 증정
▶내방객 여러분께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1일 선착순 한정)

이벤트3 사전예약 신청자 사은품 증정
▶사전예약 신청하신분께 풍성한 사은품 증정합니다.

* 상기 사은품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벤트는 용포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고운하이플러스가 명품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선보입니다!

8년동안 내집처럼 이사걱정 없이 8년간 안정적인 임대 보장!	청약자격 제한 無 청약자격 상관없이 만9세이상 누구나 가능!	월임대로 無 매달 납입하는 월임대로 없는 전세조건!	이사는 자유롭게 8년 계약 만기전이라도 임대승계 가능!
---	---	--	--

69㎡ / 84㎡ | 총 303세대
문의 062-529-8100
소재 (주)루시엘, (주)고운하이플러스(주) (주)고운건설(주)

용봉 신안 고운하이플러스 모델하우스

우성세차장, 경희궁, 한빛병원, 밴드, 사무대로, LK메디피아, 재규어, 렌트카

▶ 모델하우스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4-1 17번지